

# 때로는 *Speedy* 하게 때로는 *Loose* 하게!!

해양레저스포츠하면 가장 먼저 짜릿함과 긴장감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KIMA WEEK 2014가 열리는 부산에서는 낭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절경 너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  
그리고 바다 위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감탄을 자아낼  
만큼 운치 있습니다.

스릴과 낭만이 공존할 수 있는 곳.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입니다.

KIMA2014  
WEEK



# 해양과 사람, 문화와 산업,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킹이 미래다.

- 문철호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조직위원장 특별 인터뷰



부산은 지금 마린산업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앞으로의 마린산업 발전에 큰 지표가 될 KIMA WEEK 2014는 모든 사람이 해양을 즐기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지난 3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IMA WEEK 2014와 그 주관단체인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킹의 새로운 수장이 임명되었다.

이에 안효영 KIMA WEEK 2014기획조정단 위원이 직접 문철호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조직위원장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부산의 해양 발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Q. 부산에 오시자마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행사의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해양에 대해 갖고 있으신 생각들이 궁금합니다.

A. 책임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만, 부산과의 인연과 함께 허락된 특별한 기쁨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환경이 제게 아주 익숙하진 않지만, 오랜 기차생활을 거치며 해양 도시들을 접할 기회들은 간혹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홍콩으로, 십 수 년 전임에도 이미 다양한 해양레저가 보편·대중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의 다양한 풍경과 활동들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생활 저변에서 해양을 향유한다는 것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사회 전반에 굉장한 활력을 주고, 도시와 국가의 파워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해양 전문가가 아니지만, '해양'이 품은 가치와 에너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부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해양레저축제'를 지향하는 KIMA WEEK가 대한민국 해양레저 활성화와 해양레저산업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훌륭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Q.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가 이제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이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가 많았던 까닭인지 올해 또한 기대가 큼니다. 첫해의 성과와 올해 준비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2013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막식부터 내외 귀빈과 많은 해양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고, 전 세계 6개국에서 60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창조경제 기반의 글로벌 해양레저 비즈니스 성공사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국제수퍼요트컨퍼런스는 호주수퍼요트협회의 Barry Neville Jenkins 회장을 비롯한 해양 관련 국내외 저명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수퍼요트시장의 전망과 한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양레저대회를 KIMA WEEK라는 브랜드로 묶어 진행하고, 다양한 해양레저 무료체험 프로그램들을 개설하면서 시민들이 해양레저와 더불어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획된 행사들은 영화제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또 다른 매력을 알릴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KIMA WEEK 2014는 9월 29일(월)부터 10월 5일(일)까지 7일간 개최됩니다. 해운대, 광안리, 수영강 일대와 BEXCO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전국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30여 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행사기획과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KIMA WEEK 2014'가 올해의 주요행사로 '부산국제보트산업전 (Busan International Boat Show)'을 기획했습니다.

10월 2일(목)부터 총 4일간 해운대 BEXCO 제1전시장과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약 100개사가 참가하는 800부스 규모의 전시회로 대형 요트와 중소형 보트, 요트 엔진, 마리나 시설, 해양레저 장비 등의 전시가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국내외 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올해는 아무래도 '부산국제보트산업전 (Busan International Boat Show)'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트쇼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한 바 있어, 어쩌면 후발주자인 셈인데요.

국제적인 보트산업전시회를 펼치는 데 있어 부산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경쟁력 내지는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무엇보다 부산이 가지는 경쟁력은 '바다'라는 천혜의 환경이겠지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유수의 보트쇼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보트쇼는 해양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은 해안선이 적은 기존의 국내 보트쇼 개최도시들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면 당연히 해양수도인 부산이죠.

두 번째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전시컨벤션 현장들을 둘러보면, 단순히 정보와 비즈니스만을 위한 기획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Watch, Catch, Touch라는 말도 있듯이, 감성으로 어필하여 방문객들과 교감할 수 있는 원가가 있어야 합니다.

부산은 해양레저산업의 생산지이자 소비지로서의 강점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제일의 MICE산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해양관광과 영화영상 등의 부가적인 매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특히, 전시기간이 부산국제영화제 기간과 맞물려 있고, KIMA WEEK가 부산국제영화제와 업무협약을 맺어 더욱 풍성한 매력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KIMA WEEK'는 해양을 중심으로 문화와 산업의 융합베이스에서 디자인된 행사라는 기획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실효성 있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선 어떤 노력 (혹은 환경)이 필요할까요?

A. '융합'이라는 단어 자체에 내포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 '융합'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성들이 벽을 넘어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창의적인 도전'이 융합의 방향성이라 본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서로의 가치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간의 객관적인 이해와 인정이 베이스가 되어야 하겠지요.

생산자들이 문화를 이해할 때 제품은 매력을 가지게 되고, 매력적인 제품은 시장에 윤기를 더하면서 비즈니스는 즐거워집니다. 거꾸로, 문화 종사자들이 산업을 이해할 때 수요층이 늘어나고 문화가치의 확산속도는 가속화됩니다. 나아가 문화산업이 지속가능해지고 윤택해지며, 파워풀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 창의적이고 좋은 생각들이 시도되어야 진정한 융합의 산물들이 빛을 보게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겠죠. 해양과 문화, 해양과 산업 간의 융합 또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Q. 'KIMA WEEK' 역시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전국적인 산·학·연·관의 관심과 에너지를 네트워킹하고 있는 좋은 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어떤 역할에 주력하고 계시는지요?

A. 현대사회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두 말 필요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네트워크라 하면, 중국인들이 말하는 '관시(關係)'란 말이 떠오릅니다.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조직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나아가 조직과 조직의 관계에서 건강한 네트워킹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가지는 힘 또한 '관계'의 힘입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참여하시는 모든 회원들께서 각자의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를 유지해 오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군요.

현재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인프라, 창의적인 기획, 전문인력 양성 등 네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세월호’라는 안타까운 사건 앞에서 해양에 대한 정서는 범국민적으로 침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KIMA WEEK 2014’를 통해 해양을 향한 국민들의 정서를 다시 ‘희망’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KIMA WEEK 2014’에 거는 기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산업이든, 문화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려면 ‘사용자’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KIMA WEEK가 해양레저와 해양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은 해양레저를 즐기는 시민들, 해양을 일터로 혹은 삶터로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법적, 행정적 환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범국민적 슬픔이 가져다준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관리’의 중요성이라 생각합니다.

삼면이 바다라는 천혜의 해양환경을 가진 대한민국이 해양을 국가경쟁력으로 삼기 위해 선결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도 지혜를 모으고, 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KIMA WEEK 2014’는 올해도 해양을 중심으로 한 레저스포츠, 산업, 문화가 보다 조화로운 융합을 이루어내며 해양 기반의 국내 산업 활성화와 함께 해양문화를 바로 세우고, 해양을 통해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함으로써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마다 부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KIMA WEEK)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nterviewer. 안효영 | KIMA WEEK 2014 기획조정단 위원

Photographer. 곽동민



## 황제처럼 항해하라!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보트쇼 (Dubai International Boat Show)



중동지역의 유일한 보트쇼인 두바이 국제보트쇼는 싱가포르 국제보트쇼, 일본 요코하마 국제보트쇼와 함께 아시아 3대 국제보트쇼로 손꼽힌다. 전 세계 40여 개 나라, 80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두바이 국제보트쇼는 400개가 넘는 보트·요트, 요트용 가구 및 액세서리, 해양레저스포츠용품들이 전시되며, 앞으로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두바이 국제보트쇼가 세계적인 보트쇼로 성장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약 19년의 긴 시간동안 해양산업전시회를 함께 개최한 덕분에 투자자들을 상대로 높은 판매기록과 성과를 이뤘으며, 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중동지역 내 최고 해양레저산업행사', '중동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기여' 등과 같은 평가를 받으며 여러 가지 상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윈드서핑, 카이트 서핑 등의 해양레저스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추가한 것도 성과에 한몫하였다.

세계 해양레저산업의 선두에 있는 호주, 플로리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여러 국가의 든든한 지원 역시 두바이 국제보트쇼의 성공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처럼 사업성과 유흥성, 다른 국가의 지원 등 다양한 성공 요인이 융합함으로써 세계의 많은 대부호로 하여금 보트쇼에서 많은 소비를 하게 만들었으며, 오늘날의 두바이를 호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로 성장시켰다. 고급호텔, 카지노로 유명한 두바이는 세계의 부호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로도 유명하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두바이 국제보트쇼는 다른 국제보트쇼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리나 지역 일대는 화려한 관광 명소로 개발되었는데, 세계의 부호들은 이곳에서 별장식 아파트를 소유하며, 마리나에 정박시켜 놓은 보트를 타고 여유롭게 파티와 휴일을 즐긴다.

두바이 국제보트쇼는 업체들이 자신들의 최고급 보트를 세계의 부호들에게 팔 목적으로 개최된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바이에는 크고 작은 규모의 보트들이 걸프 해안을 누비는데 소형보트, 제트스키, 초호화 요트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 중 초호화 요트는 수억 원대부터 수십억 원대의 보트까지 그 몸값이 어마어마하니, 걸프 지역 및 UAE 내의 부호 및 사업가 사회에서 요트는 부를 과시하고 자기만족을 채우는 척도가 되었다.



바다가 잔잔하고 태풍이 불지 않기로 유명한 두바이의 걸프만에서는 보트를 타고 아름다운 주메이라 비치와 버즈알아랍 호텔, 더 월드의 인공섬들을 구경할 수 있다. 10인용 보트는 보통 수십만 원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보트 주인의 안내를 받으면서 3~4시간 동안 탈 수 있다.

보트 내부에는 화장실과 아늑한 침실, 고급스러운 음식 등 쾌적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황제처럼 격이 다른 보트여행을 꿈꿔왔다면 두바이 국제보트쇼로 와라. 짧은 역사에 비해 큰 규모를 자랑하며 아시아 대표 보트쇼로 자리 잡은 두바이 국제보트쇼에서 화끈한 경기와 럭셔리한 낭만을 즐겨보아라.



##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성공 개최 위해 한·중 협력방안 모색

- 상해국제보트쇼 주최자 방문, 개최 성과에 따라 협력범위 결정하기로



지난 6월 16일 KIMA WEEK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산국제보트산업전과 중국 상해국제보트쇼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의에는 여한웅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사무총장, 상해국제보트쇼 주최자인 UBM상해 Helena Gao, UBM코리아 차호근 팀장, 벅스코 전시회 담당자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더베이 101과 벅스코 전시장,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직접 방문, KIMA WEEK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이 열리게 될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요트B 투어체험도 즐기며 전시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시회의 주최, 기관, 예산, 참가업체 및 바이어 유치 등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진 참석자들은 우선적으로 양측 관계자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배너광고를 교환 게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와 함께 올해 부산국제보트산업전 개최 후의 성과와 점진적 성장 가능성까지 검토하여 향후에 이루어질 협력범위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중국 상해국제보트쇼는 현재 경기국제보트쇼와도 일부 협력 중으로, 이번 업무회의를 통해 부산국제보트산업전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지금은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 외부와의 소통 및 정보 공유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오며 아시아 3대 보트쇼 중 하나라는 명성을 거머쥔 상해국제보트쇼 관계자들의 생생한 조언을 듣고,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의 미래를 모색할 수 있었던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KIMA WEEK 2014, 관람객들 맞이할 준비에 분주!

-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개최되는 2014 하계 해양레포츠 박람회 참가

무더운 여름,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바다는 이제 단순한 물놀이 공간이 아닌 레저활동의 장(場)으로써 그 역할이 확장되었다. 해외에서는 늘어나는 해양레저 수요에 따라 해양레저에 행사와 산업을 접목한 비즈니스가 이미 활성화되었다. 이런 세계 추세에 발맞추어 대한민국도 새로운 해양레저산업의 바다로 뛰어 들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해양도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KIMA WEEK 2014'는 세계를 무대로 해양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해양레저축제이다.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간 KIMA WEEK 2014가 이번에는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 1층 야외광장에서 개최되는 2014 제1회 하계 해양레포츠 박람회를 찾아간다.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총 10일 동안 부산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해양레포츠 상생발전 및 활성화'라는 주제 아래 해양레포츠 관련 장비와 제품, 용품 등을 전시·판매한다. 특히 패들보트, 카약, 덩기요트, 고무보트 등 평소 백화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레저장비까지 총출동하여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 백화점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마케팅을 비롯, 언론과 SNS, 블로그 마케팅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레저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KIMA WEEK 2014 및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의 사전홍보역할을 톡톡히 해내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백스코에서 개최되는 KIMA WEEK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은 700개 부스 규모에 100개사 업체가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활발한 사전홍보를 통해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은 KIMA WEEK 2014는 행사 전까지 앞으로도 계속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소식을 비롯한 정보 제공 및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왼쪽 상단부터 “덩기요트”, “우든보트”, “바이킹 카약”, “미니보트”



## 신선해도 너~무 신선한 이색보트대회

‘보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짜릿하게 바다를 질주하는 모터보트를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 명이 노를 저으며 전진하는 기다란 보트를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계곡의 거친 물살을 헤쳐나가는 래프팅 보트를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일반인의 상식을 깨는 이색적인 보트 대회들이 있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불가능을 뒤엎는 재미있는 보트 대회를 만나본다.



## 청춘의 종이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작년, 꼭 이날만은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종이배 경주 대회 참가자들이었다.

이 대회는 물에 가장 취약하다 할 수 있는 종이상자를 이용하여 배를 만들어 경주하는 행사이다.

‘박스원레이스’에서 주최하여 ‘청춘, 한배를 타다 - 돌끼충만 일탈 종이배 경주 대회’라는 타이틀로 개최한 이 대회는 가족팀, 학생팀, 기업팀, 동아리팀, 외국인팀 등 총 56팀, 350여 명이 참가하였다. 작년 대회는 비 때문에 급류를 타는 래프팅 같은 장면을 멋지게 보여주며 완주한 팀이 많아 관계자들도 놀랐다는 후문이다.

시상은 가장 레이스 기록이 빠른 팀 외에도, 드라마틱하게 물에 빠지는 팀에게 타이타닉상, 큰 웃음을 준 팀에게 돌끼충만상, 보트 디자인이 뛰어난 팀에게 창의보트상, 열정적으로 참여한 가족에게 박스원 패밀리상, 커플끼리 완주한 팀 중에 로맨틱커플상을 수여하는 등 20종이 넘는 다채로운 부문으로 진행되었다.

더 빠르고 덜 가라앉는 것 그리고 디자인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참가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관건이다. 보는 이들에게도 재미를 선사하는 이 대회는 흥천에서 개최된다.



## 폐지에서 항선(航船)으로



종이보트 경주대회가 국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옥스포드에 있는 트렌드아본강 (Trend Avon river)에서는 종이판지 보트경연대회 (Cardboard Boat Race)가 개최되는데, 횡수로 20여 회가 넘었다. 이 대회는 못 쓰는 종이상자를 재활용해서 배를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 배를 만드는 데는 재활용 종이상자, 접착제, 테이프와 페인트만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경기용 보트, 바이킹 배, 용머리 배, 여러 동물 모양의 배까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니, 참가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대회이다.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로 걷은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 올림픽 후원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니 참가자들도 훈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것 같다.

## 누가 욕조에서 샤워만 한다 하던가?

마지막으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나나이모(Nanaimo)에서 열리는 세계욕조보트경주대회가 있다. ‘나나이모 해양축제’의 꽃이라 불리는 세계욕조보트대회는 어느덧 40회를 훌쩍 넘은 장수대회이다. 1967년 처음 세계욕조보트경주가 개최되었을 때 참가한 200개의 욕조모양 보트 중 완주한 보트는 단지 47개였지만, 현재는 욕조 모형보다 날렵한 모터보트에 가깝게 개조한 욕조보트들이 많아 참가자들의 스릴 넘치는 질주를 구경할 수 있다. 나나이모의 프로텍션 섬을 출발해 북쪽으로 인근 섬을 돌아 디파쳐 베이까지 약 57km를 경주한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독특한 형태로 자신만의 욕조 보트를 꾸며 각자의 개성을 살린다. 하지만 이 경주에 참가하는 보트는 반드시 욕조모양이어야 하며 무게 최소 150kg 이상, 길이 1.1m, 넓이 50cm의 규격을 따라야 한다.

누구나 물에 작은 종이배를 띄우면서 ‘나도 종이배에 탈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그렇게 무심코 하게 되는 단순한 호기심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현실화하려는 열정이 이처럼 신나고 기발한 보트쇼들을 탄생시킨 게 아닐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이색보트쇼! 참가하는 즐거움에 관람하는 즐거움이 더해진 두 배의 즐거움으로 멋진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동남권 해양레저지역-부산의 간판 해양명소, 해운대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명소로 손꼽히는 해운대는 컨벤션·영상·해양레저의 특구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아쿠아리움, 요트경기장, 벅스코, 미술관 등 각종 문화·관광시설이 있는 부산의 중심도시이다. 낮에는 바다에 비치는 빛나는 햇살에 눈이 부시고, 밤에는 화려한 조명에 매료된다. 해운대에서는 요트, 서핑, 보드, 제트스키를 포함한 거의 모든 해양레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즐기는 해양스포츠는 요트와 바나나보트이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1965년 개설된 이래, 전국각지에서 50~60만 명의 피서객들이 즐겨찾는 최고의 피서지로 손꼽힌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대체로 수심이 얇고 조수의 변화가 심하지 않다는 것이 레저 활동에 있어 큰 장점이다. 또한 해양 접근성이 좋고 요트와 해양레저센터 주변이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호텔이나 쇼핑, 먹거리 탐방 등 해양레저 체험과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광안리와 해운대 사이에 위치한 수영만요트경기장은 1983년에 건설되어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올림픽경기대회 때 요트 경기를 개최한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여러 해양레저스포츠 단체들이 레저 활동을 즐기는 곳으로 주로 덩기요트, 크루저요트, 피싱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요트학교, 윈드서핑학교, 잠수학교 등 각종 해양레저 강습소를 비롯하여 부산요트협회, 부산수상항공협회, 스킨다이빙협회 등의 전문 단체들이 해양레저에 미숙한 일반인들을 위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해운대가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면서 대회 규모가 점차 발전하고 있고, 이로써 시민들이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기회도 넓어졌다. 앞으로 해운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더 다양한 레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MARINE LEISURE

### ■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 요트 - 부산은 요트를 타기에 적합한 자연 여건과 넓은 계류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요트 타는 것을 즐긴다.

특히 수영만요트경기장이 건설된 이후로는 매년 각종 국내외 요·보트경기대회가 열리고 다양한 해양 스포츠가 활성화되었다. 대표적인 요트 코스로는 수영만요트경기장~해동용궁사 코스, 수영만요트경기장~온천천 코스, 수영만요트경기장~이기대 해안 코스가 있다.

☞ 덩기요트 - 덩기요트는 요트에 선실이 없고 2~3인이 타는 무동력 요트를 지칭한다. 초반에는 초보자용 요트로 만들어졌지만, 올림픽경기과 아시안게임 등 대부분의 요트시합을 덩기요트로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다. 부산요트협회에서 덩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제트스키 - 제트스키는 수심이 30~50cm 정도만 되도 탈 수 있기 때문에 백사장 바로 옆에서도 레저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안정성이 뛰어나고 120km/s까지 속력을 낼 수 있어 짜릿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 해운대 해수욕장이 개장된 이후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의 사고 위험이 있어 미포선착장에서만 제트스키를 즐길 수 있다.

☞ 카약 - 카약은 바다 해수면의 역동적인 파도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레저스포츠이다.

‘한국해양청소년연맹’과 ‘(사)홀리데이코리아’를 통해 즐길 수 있고, 코스는 수영만요트경기장~마린시티~동백섬 코스, 수영만요트경기장~이기대 해안선 왕복 코스, 수영만요트경기장~해동용궁사 왕복 코스 등이 있다.

### ■ Check Point



☞ 해운대 모래축제

- 모래라는 독특한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적 축제로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 드넓게 펼쳐진 백사장을 무대로 세계적인 모래작가 작품전, 샌드보드, 샌드클럽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 아쿠아리움

- 해운대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이곳은 국내 최대, 최첨단 해저 테마수족관이다. 국내 최장 80m 터널, 3000톤의 메인수조, 바닷속 생물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터치 풀과 심해어류 등 전체 400여종 40,000여 마리의 생물이 전시되어 있다. 부산 아쿠아리움은 국내 어느 아쿠아리움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미와 흥미를 줄 수 있다.

☞ 국제드래곤보트대회

-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드래곤보트는 한 배에 보통 20여 명의 패들러가 고수의 북소리에 맞추어 한 동작으로 노를 저어 수면 위를 질주하는 레포츠이다. 매년 해운대 수영강변 하구의 APEC나루공원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2012년 14개국의 500여 명이 참가하면서 매년 대회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 관련 단체

- 부산요트협회 - [www.bsaf.or.kr](http://www.bsaf.or.kr) 051)747-1768

-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 [www.komalnet.or.kr](http://www.komalnet.or.kr) (051)760-1130

- (사)한국해양소년단부산연맹 - [www.sek.or.kr](http://www.sek.or.kr) (051)743-1454



## 상어요리는 어민들의 손맛에서 탄생한다



사람들은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실내에서 에어컨을 켜거나 이열치열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는다. 그 중 바다 위에서 즐기는 해양레저스포츠는 색다르고 짜릿하게 여름을 날 수 있어서 더욱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다. 아름다운 바다를 벗 삼아 레저를 즐기면 몸과 마음이 힐링되니, 이보다 더 좋은 피서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그 어느 피서가 좋다 해도 허한 나의 배속을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으로 꺼진 배를 채워줄 해산물 요리를 소개하려 한다. 이번 시간은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해산물 요리 중 상어고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상어는 원추형 몸체에 꼬리 지느러미는 칼 모양이며, 피부는 이 모양의 비늘로 덮여있어 거칠고 단단한 어류이다. 바다의 포식자라 불리는 상어가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별미로 사랑받아왔다는 것을 아는가?

상어음식 하면 대부분 상어 지느러미(shark fin)를 말려 만드는 중국음식 삭스핀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고급 요리로 손꼽는 삭스핀 요리는 많은 사람이 한번쯤 먹어보려 하는 귀한 음식인 것은 맞다. 하지만 지느러미 외에도 상어의 많은 부분이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귀한 재료로 여겨졌다. 그 증거처럼 상어고기는 돔배기라는 이름으로 제사상에 익숙하게 올라온다. 돔배기는 토막 내서 간을 친 상어고기라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이다. 예전에 동해안에서 잡은 상어를 안동이나 의성 등의 경북 내륙지방으로 옮기기 위해 염장했던 것으로, 주로 구이와 산적 또는 조림형태로 요리된다. 상어탕국 역시 제사상에 많이 올랐는데 건더기가 많고 국물을 자작하게 끓인 것이 특징이다. 평소에 멀겁게 먹던 국과는 달리, 정성을 보이기 위해 살코기가 많고 국물에 자극적인 양념을 첨가하지 않아 그 자체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돔배기라는 말이 전국적인 명칭처럼 쓰이게 된 것은 제사에 빠뜨리지 않고 상어고기를 올렸던 경상도의 오랜 문화 덕분이었다. 안동에는 상어고기와 고춧가루, 배, 각종 양념, 쌀밥을 버무려 먹는 상어식해가 있는데, 채소가 없는 비빔밥과 비슷한 모양새이지만 부드러운 식감의 상어고기와 이루는 조화가 환상적이다.

돔배기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상어고기의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제주에는 지금도 깊은 밤 주낙(어획용 어구)을 내리고 상어를 잡아 올리는 전통방식으로 상어를 낚는 상어잡이꾼들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상어를 회로 먹기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 껍질을 손봐야 한다. 상어 껍질은 비늘이 있어 거칠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부어 솔로 긁어내어 손이 다치지 않게 한다. 워낙 껍질층이 두꺼워 뜨거운 물을 붓는다고 쉽게 살이 익지 않아 회로 먹을 수 있고, 각종 양념과 채소와 함께 버무리면 맛있는 상어회무침이 된다. 두툼하지만 육질이 매우 부드럽고 홍어와 같이 약간 특 쏘는 맛이 나기 때문에 막걸리를 넣어 먹으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홍어가 유명한 흑산도에서도 상어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옛날에는 상어를 잡아 육지에서 생필품과 교환을 했다고 한다. 한때 흑산도 일대에 상어잡이가 전성기를 누린 적이 있어서인지 흑산도에는 특이한 상어 요리가 있다. 상어를 된장에 발라 찌낸 된장상어찜은 된장이 비린내를 잡아주고 찜 효과로 영양분이 응축되어 있어 고소하고 담백한 건강요리로 손꼽힌다. 또 상어알을 한데 모아 파와 마늘을 썰어 넣고 계란찜처럼 찌내면 상어 알찜이 완성되는데 계란찜과 비슷한 식감으로 밥상의 제일 인기장이다.

가장 인기 많은 상어 부위는 뱃살이다. 지방과 알맞게 섞여 있는 뱃살은 소고기의 마블링을 연상케 한다. 두꺼운 상어껍질을 삶아 길게 썰어 먹는 상어두치는 삼국시대에 산적을 해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예부터 사랑받아왔다.

한방에서는 상어고기를 ‘교어(鮫魚)’라고 하여 약재로도 사용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음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해왔다. 상어고기는 오장(五臟)을 보강하고 부기를 가라앉히고 어혈을 없애는 효능이 있고, 상어껍질은 물고기 독을 풀어주고 체력을 보강해주는 효과가 있다. 바다를 헤엄치는 무서운 걸모습과는 달리, 물으로 나온 상어는 특유의 특 쏘는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어민들의 생활과 특성이 묻어나는 다양한 상어요리법으로 올여름 기운차게 보내기를 바란다.

---

은빛은 순채국에 영기고 금빛은 기장술에 뒀구나.

푸짐한 장만은 사막새 종달새 구이요,

진기한 반찬은 상어와 송어찜일세.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 세계 속의 한국다움으로 해양레저 발전에 지표를 연다!

### - KIMA WEEK 2014 공식 포스터 디자인 확정

글로벌 해양레저축제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KIMA WEEK 2014'가 그 화려한 막을 올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축제는 작년보다 더욱 수준 높은 행사 진행을 위해 프로그램 및 세부 아이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무장한 본 행사에 더욱 빛을 발해 주는 것이 바로 KIMA WEEK 2014의 얼굴, 공식포스터이다. 대한민국 해양레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이번 축제를 대표할 공식포스터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빨간색과 파란색, 하얀색이 주된 컬러인 이번 포스터는 KIMA WEEK가 대한민국 해양레저 발전을 위한 Key station이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상단 빨간색 무늬는 힘차게 요트가 항해하는 이미지를, 하단 파란색 무늬는 넘실대는 파도를 연상케 하는 무늬로 출렁이는 파도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요트와 파도 이미지패턴을 디테일하게 적용하여 축제로서의 풍성함과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역동적인 이미지를 가진 두 컬러는 KIMA WEEK의 아이덴티티 컬러로써 한국 전통 문양인 태극을 상징화한 것으로, 대한민국 해양레저축제의 대표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정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넓게 뻗어 있는 하얀 형체는 배의 키(rudder)를 나타낸 것이다. 배의 키는 항해에 있어 방향을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박 부품 중의 하나이다. 키 이미지를 포스터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KIMA WEEK가 해양레저 발전에 뱃머리가 되어 미래 비전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발전 지향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포스터 한가운데 있는 키(rudder) 이미지를 중심으로 배치된 대각선면 분할은 해양레저축제로서 KIMA WEEK의 다이나믹함과 속도감 있는 비전을 실현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해양강국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한국의 미와 축제의 역동성 그리고 해양레저 발전에 대한 포부까지 모두 망라한 KIMA WEEK 2014 공식포스터는 '전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해양레저 축제'라는 KIMA WEEK 2014의 지향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한국다움'의 흔적과 함께 진취적인 도전정신, 사회적 책임감을 고스란히 담은 포스터의 의미대로,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한 KIMA WEEK 2014는 오는 9월 29일 그 화려한 막을 열게 된다.



## 국내 최초 해양 버라이어티 '바다야 놀자',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작년, 1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과 주위에 모여든 많은 구경꾼의 함성으로 바다가 시끌벅적했던 적이 있었다. KIMA WEEK의 꽃이었던 '바다야 놀자' 촬영 때의 일이다. 젊은 친구들의 패기와 열정으로 시원한 바다도 그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

'바다야 놀자'는 해양레포츠의 메카인 광안리에서 해양레저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국내 최초로 바다 위에 세트를 설치하여 시원한 여름과 버라이어티의 느낌을 살리고, 요트, 카약, 플라이보드, 윈드서핑 드래곤보트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게임에 접목해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해양레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바다야 놀자'는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바다야 놀자'는 4명의 남자 MC들의 바다 도전기를 주제로 바다에서 학습하고 도전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스토리로 구성, 작년보다 더 큰 스케일로 변화했다.

우선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국한되었던 프로그램 장소가 올해는 광안리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 울산 진해해수욕장 등으로 확장되어 사람들이 폭넓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바다를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더 흥미진진하게 변화한 경기 구성도 한몫한다. 매회 한 종목을 마스터하는 걸 목표로 하여 1차, 2차 도전과제를 수행하는데, 이 도전과제를 마스터한 종목으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덧붙여 특집으로 구성 될 대회 출전 편에서는 경기 중간에 벌칙을 수행하는 벌칙타임의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더위를 잊게 해줄 국내 최초 해양버라이어티 '바다야 놀자'는 7월 19일 첫 방영을 시작으로 12주간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40분에 부산 MBC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KIMA WEEK 2014의 축제기간 중에는 벅스코에서 'KIMA WEEK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 특집편'을 촬영, 10월 3일에 방영할 예정이다.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면서 시원한 바다를 가르는 것은 도시숲에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달콤한 휴식이 아닐 수 없다. 무더운 더위에, 답답한 일상에 힘을 잃은 사람은 누구든 '바다야 놀자'를 구경하고 체험하고 환호해라!

KIMA WEEK 2014는 '바다야 놀자'의 방영으로 해양과 문화, 대중의 참여가 만나 특색 있는 해양축제로 거듭날 것이다. 체험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유쾌하게 만드는 해양 버라이어티 '바다야 놀자'로 해양레저의 대중화를 기대해본다.



## 船遊 / boating in old pictures ②

### - 평양감사향연도-월야선유도月夜船遊圖

풍악이 하늘을 울리고 돛배가 강을 뒤덮었다.  
감사는 누선(樓船)에 높이 앉고  
여러 수령들도 다 모여들어 잔치가 크게 벌어졌다.  
맑은 노래와 아름다운 춤에 그림자는 물결 위에 너울거리고  
성 머리와 강 언덕은 사람으로 산과 바다를 이루었다”  
- 청구야담[靑丘野談] 중에서-



■ 평양감사향연도 월야선유도 月夜船遊圖 김홍도作 (18~19세기) | 종이에 채색, 71.2×196.6cm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구야담靑丘野談〉의 기록이 아니더라도, 종2품 평양감사의 부임축하연이 얼마나 성대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평양감사 부임축하연은 단원 김홍도의 붓끝에서도 그려진 바 있는데, 그 성대함이 우리의 짐작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단원이 18~19세기경에 그렸다고 알려진 ‘평양감사향연도’는 ‘월야선유도’, ‘부벽루연회도’, ‘연광정연회도’라는 세 폭의 그림으로 구성되었고, 그림의 크기 또한 약 6m에 이르는 파노라마식 대작이다.

세 폭의 그림 중 특별히 ‘월야선유도月夜船遊圖’을 들여다보자. 우선 뱃놀이의 배경은 저만치 평양성과 부벽루가 보이는 대동강변이다. 넓게 그려진 대동강 위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보이고, 선상연회가 한창이다. 강의 중앙에 가장 큰 누선에 평양감사로 보이는 관리가 좌정하고 있고, 배 앞쪽에 네 명의 악사가 각각 대금, 생황, 해금, 피리 혹은 통소류의 종적 등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어떤 배에는 무희들이 타고 있고, 어떤 배에는 갓을 쓴 선비들이 흥겨워 보인다. 강의 좌우에는 횃불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무엇보다 지팡이 짚고 구경나온 노인, 아이 업은 아낙, 아버지 손을 잡고 나선 아이...,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이 그림의 축제적 분위기가 더욱 돋보인다.





문외한의 눈으로 그림을 살피다 보면 특별히 두 가지를 더 주목하게 된다.

첫째는 평양감사가 좌정한 ‘누선(樓船)’이다. 누선(樓船)이란,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정자를 배 위에 올려놓은 배를 뜻한다. 배의 목적부터가 ‘유학’에 있었던 만큼 오늘날의 요트와 같은 개념이다.

기록에 의하면, 평양감사가 좌정한 누선은 관선(官船) 위에 아예 ‘정자각’을 세우고 지붕을 이어 엮은 것으로 확인된다. 좌우 뱃전에서 조선식 큰 노를 사공 2명이 한 조로 배를 젓고, 고물에서는 사공 3명이 한 조로 조선식 큰 노를 젓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배의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마음이 끌리는 장면은 어스름 ‘달밤’을 흰히 밝힌 ‘햇불’이다. 사실, 그림 속에서 ‘달’의 흔적은 보일 듯 말 듯 미미하지만, 달밤이라 더 화려했을 햇불은 그날의 연회만큼이나 즐거운 불거리였을 것이다.

달빛에 취하면 술보다 독한 법이라 했던가. 선유는 낮 동안에도 멋스럽지만, 그 백미는 역시 ‘월야선유’다. 월야선유의 매력은 흐르는 강물에 비친 햇불의 몽환적인 아른거림과 그 붉은 강 위로 항해하는 묘한 감흥이 아니었을까!

부산은 선유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해양도시다.

다양한 국제행사들이 줄을 잇는 계절, 한 번쯤 달그림자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월야선유’의 감흥에 젖어볼 수 있기를 권한다.  
평양감사는 못되어도 ...

---

청구야담[靑丘野談] - 조선 후기에 편찬된 편자 미상의 야담집으로 여러 야담집 중에서 내용이 풍부하고, 세태 묘사가 자세한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이미지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KIMA WEEK 2014는 행사를 즐기는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와  
최근 소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기적인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스레터'를 받기 원하시면 komalnet@naver.com로 수신을 원하는 이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뉴스레터'를 더 이상 구독하고 싶지 않거나  
수신 메일을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 komalnet@naver.com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



KIMA WEEK 2014 사무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8번길 69 | TEL : 82.51.760.1143 FAX : 82.51.760.1134

Copyright (c) 2014 KIMA WEEK 2013. All Rights Reserved